

The Builder VI

자신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남도 세울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

(1)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날 때 그 통로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땅을 다스릴 모든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다.

[창세기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불변의 언약이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이 땅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사람이 중요하다.

(2)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세우신다.

두 번째 법칙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이다. 아담 이후로부터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노아를 세우셔서 방주를 만드셨다.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믿음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셨다. 이삭과 야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다.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이루셨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통일 왕조를 세우셨고, 그의 자손 예수님을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셔서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하도록 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종교개혁, 부흥,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영역에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진행하신다. 그래서 조이풀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야 한다. 그 비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

(3) 세워진 사람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빌더'로 세우실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의 기준이 정확히 보여지는 말씀이 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였다.

[사무엘상 16:7]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분명히 다르다. 사람은 외모와 능력, 보여지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워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는 훈련을 하신다. 즉,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하는 생각을 넘어선 사람을 찾으신다. 선악과를 탐내지 않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킨 선악과가 바로 내 뜻과 내 능력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창세기 3: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자신이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스스로 왕의 보좌에 앉을 수 있다는 반역의 마음이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하는 일을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놀라운 사실은, 내 눈이 밝아져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눈을 달아 버린다는 것이다. 이 상태가 교만이다.

2. 움직이는 사람들

(1)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임하는 때가 언제인가? 아주 명확하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죄인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의인에게는 필요없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2:17]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건강한 마음이다. 정확하게 자신을 보는 것만큼 건강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발전이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도움받을 준비가 된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탕자의 위대함은 큰 아들처럼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와 잘못을 했지만, 바닥에 처한 자신의 모습을 곡해함 없이 인정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 모습이 바로 '회개'이다. 그래서 회개는 강력하다.

그러나 진짜 문제인 사람은 '사울'처럼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방어기제를 두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스스로 곡해하여 바라본다. 이런 사람들이 타인을 어떤 시각으로 보겠는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을 진짜 두려워한다. 그래서 아담은 숨은 것이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두려움과 함께 온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다. 가장 부끄럽고,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의 모습을 직면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가장 연약한 수치스러움과 정죄감의 자리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승리며 능력이다. 사탄은 이때 당황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죽음의 자리를 이긴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짜 '빌더'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 세움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2) 빌더 모세 (출 6:28-30, 7:1-7)

[출애굽기 6:29-30]

29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30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들겠습니까?"

[출애굽기 7:1, 6-7]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6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7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여든 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여든세 살이었다.

모세의 나이 80, 그의 대언자 아론의 나이는 83,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르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 살인자와 범죄자로 낙인찍힌 애굽에 대한 두려움 (추락하여 떨어진 곳 - 자신을 실패자로 알고 있는 장소로 가는 것이 더 어렵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빌더로 세워진 모세의 상황이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1절)" 가장 강력한 말씀이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는 확신 보다 큰 약속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이 약속이 '빌더'로 세워진 우리들에게도 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왕의 권세가, 모세에게 하신 약속처럼 우리 안에 회복되었다는 사실이다.

오늘 모세의 위대함은 출애굽기 7:6절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으로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이다. 일단 시작했다는 것이다.

(3) 빌더는 움직이는 자이고, 시작하는 자이다.

시작해야 세울 수 있다. 움직여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움직이는 자들에게 일어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발을 떼는 자들에게 일어난다. 결국 그 사람들이 완주할 수 있다. 모세, 느헤미야처럼 현실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바로와 적의 공격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겨내고 승리를 이룬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잘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4) "아무튼 잘 했다"

부족하고 좌충우돌하며 달려갔지만, 결국 마지막 목적지에서 나를 향한 건강한 칭찬이 바로 '아무튼 잘 했다'의 고백이다. 이것이 모세와 느헤미야의 고백이며, 제자들의 고백이다. 완벽하게 달려간 것이 아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결국 완주자들의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잘 달려왔다' 라는 고백이 '아무튼 잘 했다' 라는 건강한 고백이다. 이것이 우리 조이풀의 고백이다.

(5) 내 생각보다 나를 더 강력하게 신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 형편없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기대이다. 그러나 그 절대적 주관적 기대가 결국 우리를 세우신 빌더의 기대였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자신감을 갖자.